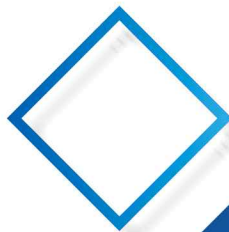


R&I TRENDS

EU R&I 주간 브리핑

2025.04.09



Contents

▶ EU 연구혁신 정책 동향

- ① 호라이즌 유럽 그랜트 협약서 주석판(AGA) 개정 ... 클러스터별 주요 정보세션 일정
- ② EU, FP10과 경쟁력 기금 '둘 다 가능' 입장 표명(4.3)
- ③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집행위의 투명성, 재정 조건 및 제한된 공모에 대한 불만 제기(3.27)
- ④ EU-스위스, 유럽연합 프로그램 참여 협정 진전(4.2)
- ⑤ 집행위, 유럽 문화유산 과학 연구 인프라에 컨소시엄 법적 지위 부여(3.28)
- ⑥ 집행위, 새로운 유럽 내부 안보 전략 발표(4.1)
- ⑦ 유럽 단일특허, 중소기업과 대학에서 빠르게 확산(3.27)

▶ EU 공모 현황 및 보고서 등

- ① 집행위, 과학 자문 메커니즘(SAM) 활동 보고서 발표(4.2)
- ② 유럽인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4.8)
- ③ 호라이즌 유럽 성평등 기준 적용의 실제 영향 및 과제(4.1)
- ④ 호라이즌 유럽 2025 공모 개시 일정(3.25)
- ⑤ (SB펀딩레이더) 수소 관련 주요 공고(4.7)

▶ EU 연구성과

- ① (성공사례) 회복탄력적인 가족을 위한 정책 설계
- ② (성공사례) 유럽의 근로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솔루션 개발

1. EU 연구혁신 정책 동향

① 호라이즌 유럽 그랜트 협약서 주식판(AGA) 업데이트 ... 클러스터별 주요 정보세션 일정

- 2025년 4월판 호라이즌 유럽 그랜트 협약서 주식판이 업데이트됨
- 핵심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음:

구분	조항	변경사항
일반 적격성 조건	Article 6.1	- 부적격 활동 사례 추가 - 출장비 명확화: Kick-off 및 종료 회의 참석 비용은 적격, 검토 회의 관련 비용 언급은 삭제(혼란 방지 목적)
인건비	Article 6.2.A	- 일일 단가 산정 기준 명확화: 215일 상한 적용 방식, 육아휴직, 성과 기반 보수 등 고려 - 단가 방식(Unit Costs) 신설: Horizon Europe의 인건비 단가 적용에 대한 상세 가이드 추가 및 자원봉사자 비용 인정 요건 명시
하도급 및 조달	Articles 6.2.B, 6.2.C	- 특정 프로그램(CEF 등)에서 하도급 제한 해제 가능 명시 - 경쟁 입찰 절차 및 참여기관 간 구매 거래 가이드 제공 - 하도급 기준에 관한 상세 참조 포함
여행, 숙박, 체재비	Article 6.2.C.1	실비 청구 관련 새로운 주식 추가: 아침식사 비용 인정 기준 및 단가 적용 제외 시 거리 구간 기준 조정
장비비	Article 6.2.C.2	- 감가상각 및 전체 비용에 대한 항목 분리 - 수령기관별 별도 지침 삭제(추가 논의 예정)
내부 청구 물품·서비스	Article 6.2.D.2	단가 산정 시 비용 풀(pool of costs) 기준 명확화
기타 주요 변경사항	Article 6.3	- 행정기관 소속 인력의 비용/기여 관련 지침 강화 - 부가가치세(VAT) 관련 안내 업데이트 - RRF(회복기금) 연계 조치에 대한 예시 추가
	Article 7	기술적/재정적 책임 프레젠테이션을 Article

		21(지급 관련) 내용과 일치
	Article 17	• EU 엠블럼 사용 및 커뮤니케이션 지표 가이드라인 링크 추가
	Article 18	• 사업 수행 관련 규정에 대한 신규 주석 추가

- 클러스터별 주요 정보세션 및 브로커리지 행사 일정은 다음과 같음 (온라인으로 진행):

클러스터	행사	일정
Cluster 1 - Health	정보세션	5월22일
	브로커리지 행사	5월5~6일
Cluster 2 - Culture, Creativity & Inclusive Society	정보세션	5월15일
	브로커리지 행사	5월16일
Cluster 3 - Civil Security for Society	정보세션	6월11일
	브로커리지 행사	6월12일
Cluster 4 - Digital, Industry & Space	정보세션	5월13~14일
Cluster 5 - Climate, Energy & Mobility	정보세션	5월6일
	브로커리지 행사	5월6일
Cluster 6 - Food, Bio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 Environment	정보세션	5월20~21일
	브로커리지 행사	5월27일
WIDERA	정보세션	5월20일
EU Missions	정보세션	5월22~23일
Research Infrastructures	정보세션	5월19일
MSCA - 박사과정네트워크	정보세션	6월24일

출처1 https://www.linkedin.com/posts/ncp-research-council-of-lithuania_updated-horizon-europe-annotated-grant-activity

출처2 https://www.linkedin.com/posts/ncp-research-council-of-lithuania_horizoneurope-activity

② EU, FP10과 경쟁력 기금 ‘둘 다 가능’ 입장 표명(4.3)

- EU 집행위원회 연구혁신·스타트업 담당 자하리에바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FP10과 유럽경쟁력기금을 모두 운영할 수 있다고 밝힘
 - 집행위는 경쟁력 기금 구조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으며, 이 기금은 EU 예산을 혁신, 전략적 자율성, 경제 성장에 집중시키기 위한 새로운 재정 수단으로 구상됨
 - 경쟁력 기금은 FP10을 포함하여 다양한 EU 프로그램을 포괄할 수 있으나, 회원국과 유럽의회, 연구 커뮤니티는 기존 연구 자금 구조가 약화될 것을 우려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임
 - 이에 대해 자하리에바 집행위원은 연구 커뮤니티를 안심시키고자 FP10이 독립된 프로그램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집행위가 지금까지 업계와 학계로부터 호라이즌 유럽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고 언급. 긍정적 피드백은 향후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
 - 그러나 경쟁력 기금 구조에 대해서는 여전히 EU 집행위 총국 및 전문가 그룹 간 논의가 진행 중이며, 최종 구조는 7월 다년재정프레임워크(MFF)와 FP10 계획이 공개될 때 확정될 예정
 - 그 이후 유럽의회, 회원국, 연구 커뮤니티는 FP10의 구조와 경쟁력 기금에 대한 협상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자하리에바는 이 모든 과정은 이사회, 의회,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결정될 것이라고 밝힘
 - 지난달 EU 연구 장관들은 FP10의 독립 유지를 촉구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였으며, 의회 또한 FP10 독립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채택함
 - EU의 경쟁력 전략은 유럽혁신위원회(EIC) 및 EU 기술 정책 목표를 강화하려는 방향 때문에 유럽연구위원회(ERC)의 독립성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으나, 자하리에바는 EIC와 ERC의 자율성 보존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③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집행위의 투명성, 재정 조건 및 제한된 공모에 대한 불만 제기(3.27)

- 호라이즌 유럽에 참여하고 있는 준회원국들은 민감한 주제에서 배제되는 문제와 함께 FP10에서 더 큰 역할을 원하고 있다고 한 연구 보고서는 전함
 - 보고서는 9개 준회원국 공공기관 관계자 12명을 인터뷰한 내용에 기반함
 - 노르웨이, 튀르키예, 스위스 등 EU 인접국은 오랜 기간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에 자금을 출연해 왔으며, 뉴질랜드, 캐나다, 한국 등 지리적으로 먼 국가들도 참여하고 있음.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준회원국으로 참여
 - 싱가포르, 일본, 이집트도 향후 참여 가능성이 있음
 - 준회원국들이 호라이즌 유럽 전체 예산의 20~30%를 부담하고 있는 만큼, “그들의 목소리는 진지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보고서 공동 저자 Mitka는 강조
- 프로그램이 국제적으로 확대되면서 준회원국들은 호라이즌 유럽의 공정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
 - 이들은 과제 공모를 결정하는 워크 프로그램 설계에는 투표권이 없고, 차기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FP10 설계에도 공식적 발언권이 없음
 - 스위스의 한 응답자는 호라이즌 유럽 참여로 국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글로벌 문제를 연구할 수 있다는 장점을 언급
 - 그러나 EU 집행위원회의 협상 과정 불투명성, 접근 제한, 재정 조건 등 여러 문제점도 지적됨
 - 호주 측 응답자는 EU의 공식적인 초대가 없어 무엇에 가입하는 지도 모르는 채 협상에 임했음을 언급했고, 보고서 공동 저자 Dohain-Lesueur 또한 첫 접촉 단계에서 정보 부족과 불투명성이 있었음을 지적
- 지리적으로 먼 국가들은 정부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재정적 위험이 있으며, 분담금 산정의 불투명성도 존재

- 뉴질랜드와 같이 지리적으로 먼 국가들은 성과 기반 지불 방식으로, 성공적인 수주가 많으면 정부 부담이 커지는 재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
- 튀르키예의 한 응답자는 분담금 비용 산정 방식이 불투명하다며 비판

○ 준회원국들은 또한 일부 과제에서 배제되는 문제도 제기함

- 호라이즌 유럽 공고 중 EU 회원국만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이 있으며, 예를 들어 스위스와 영국은 일부 양자기술 및 우주 분야 과제에서 배제됨
- 집행위는 이는 전체 과제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으나, 준회원국들은 정확한 참여 범위를 알 수 없어 답답하다고 말함

○ 준회원국들은 FP10 설계 참여를 요구하며, 준회원국간의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함

- 준회원국들은 FP10에 대해 기존 프로그램의 장점을 유지하되 큰 변화는 피해야 한다고 주장
- FP10이 경쟁력 기금에 통합되면서 준회원국들의 입지가 애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보고서는 공동위원회와 같은 구조를 통해 준회원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
- 튀르키예 응답자는 “준회원국들이 더 단결된 집단을 형성해야 한다”고 했으며, 영국 응답자도 “공동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함
- 집행위 관계자는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함께 준회원국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힘

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news/horizon-europe/associated-countries-set-out-horizon-europe-concerns>

4 EU-스위스, 유럽연합 프로그램 참여 협정 진전[4.2]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스위스는 스위스의 주요 유럽연합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는 협정 문안 승인
 - 2024년 12월 20일 집행위와 스위스는 스위스가 주요 EU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을 타결. 이로써 스위스는 다양한 연구, 교육, 보건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됨
 - 협정 대상 프로그램으로는 Horizon Europe, Euratom, ITER/F4E(핵융합 에너지 프로젝트), Digital Europe, Erasmus+, EU4Health가 있음
 - 2025년 1월부터 Horizon Europe, Euratom, Digital Europe에 과도기적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스위스 기관들은 EU 펀딩에 신청 가능
 - 양측은 협약서 문안이 협상 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공식 서명은 스위스 연방정부가 진행

출처 <https://era.gv.at/news-items/eu-and-switzerland-advance-agreement-on-swiss-participation-in-union-programmes/>

5 집행위, 유럽 문화유산 과학 연구 인프라에 컨소시엄 법적 지위 부여[3.28]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유럽 문화유산 과학 연구 인프라(E-RIHS)'에 유럽연구인프라컨소시엄(ERIC) 법적 지위를 부여함에 따라 E-RIHS ERIC으로 지정됨
 - * ERIC은 유럽연합 법률 하에서 유럽 연구 인프라 설립을 지원하는 특정 법적 형태로 EU 회원국,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특정 조건 하의 기타 비EU 국가 및 정부 간 조직을 포함할 수 있음
 - E-RIHS는 문화적, 역사적 중요성을 가진 유산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두는 연구 인프라로, 예술, 인문학, 과학, 공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통합하여 유산의 이해와 관리, 지속 가능한 활용을 증진하고자 함
 - E-RIHS는 통합 연구 인프라로서 공공기관, 연구팀, 개인 연구자, 실무자, 민간 부문 등 다양한 사용자에게 서비스(자료, 연구 시설, 장비, 데이터 및 디지털 툴)를 제공
 - 또한 HS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학생, 연구자, 전문가들이 연구를 발전시키고 E-RIHS 활용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 ERIC의 주요 역할은 연구 인프라를 설립하고 운영하며, 전략적·재정적 개발을 조정하는 것임
 - E-RIHS ERIC은 이탈리아 피렌체에 법적 본부를 두고, 키프로스,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영국 등 11개국이 창립 멤버로 참여
 - E-RIHS ERIC은 유럽단일연구공간(ERA)과 그 외 지역에 기여하며, 첨단 연구, 기술 개발, 혁신, 사회적 도전을 지원
 - 유산 연구를 통해 유산의 기원과 중요성, 물질 변화 및 열화 메커니즘, 보존 처리 효과, 환경 변화가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촉진함
 - 또한 더 나은 보존과 해석을 위한 재료와 도구를 개발 및 테스트하며, 첨단 기술과 학제 간 접근법을 통해 혁신을 촉진함

출처

http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news/all-research-and-innovation-news/european-research-infrastructure-e-heritage-science-becomes-european-research-infrastructure-2025-03-28_en

6 집행위, 새로운 유럽 내부 안보 전략 발표(4.1)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ProtectEU 전략은 회원국을 지원하고 EU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비전과 업무 계획을 제시
 - 하이브리드 위협, 조직 범죄, 디지털 범죄 증가 등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지정학적 상황 속에서 EU의 접근 방식을 재검토
 - 동 전략은 시민, 기업, 연구자, 시민사회 등 사회 전반이 참여하는 접근 방식을 통해 내부 보안에 대한 문화의 변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ProtectEU 전략은 안보 문화 조성, 위협 분석, 법 집행 강화와 위협에 대한 대처 및 회복력 구축, 글로벌 무대에서 EU의 안보 강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
 - 새로운 위협 환경에서 내부 안보에 대한 업그레이드된 EU의 접근 방식을 적용하여 집행위 이니셔티브에 대한 위협을 정기적으로 분석
 - 회원국 간 및 EU 기관과의 정보 공유 개선
 - 범죄 수사를 위한 합법적인 데이터 액세스 강화 및 효과적인 도구 도입
 -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한 주요 인프라 행동 계획 및 회복력 계획 구축
 - 조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프레임워크 및 행동 계획 개발
 - 테러리즘 및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전략 마련
 - 국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보안 플레이어로서의 EU 안보 강화

출처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5_920

7 유럽 단일특허, 중소기업과 대학에서 빠르게 확산(3.27)

- 유럽연합이 도입한 단일특허제도(Unitary Patent)가 시행 2년 만에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중소기업과 대학 등에서 채택되고 있음
 - ※ 단일특허는 기존 유럽특허와 달리 18개 EU 회원국에서 유효한 지식재산권을 획득하는 제도
 - 유럽특허청(EPO)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에는 중소기업과 대학이 보유한 특허의 57% 이상이 단일특허 보호를 신청했으며, 전체 유럽 특허 중 25.6%, 유럽 기관 소유 특허 중 36.5%가 단일특허로 등록됨
 - 2024년 단일특허 요청은 5만 건을 돌파. EPO 대변인 Berenguer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치”라고 평가
 - 국제 로펌 Taylor Wessing 수석 변호사 England는 중소기업과 대학의 참여율이 높다는 점에서 단일특허제도와 단일특허법원에 대한 높은 신뢰를 반영한다고 분석
 - 단일특허는 단 한 번의 신청과 수수료로 보호받을 수 있어 신청자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비용 효율성을 높이며, 특허 분쟁 발생 시에도 단일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시간과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향후 몇 년 안에 7국이 더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영국과 스위스를 비롯한 비EU 국가는 단일특허에서 제외됨
- 대학은 광범위한 보호 수단으로 단일특허를 선호하지만, 대기업은 전략적 선택 및 기존 국가중심 접근을 유지 중임
 - 벨기에의 KU 루벤대학교는 작년 EPO 특허 신청 측면에서 유럽 내 두 번째로 활발한 대학이었으며, 2024년 발명자로 등록된 특허 46건 중 44건에서 단일특허 보호를 신청
 - KU 루벤 대학은 시장과 라이선스 파트너가 사전에 명확하지 않은 대학 연구 특성상 범용성 높은 보호 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

- 한편 대기업 채택률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이는 대기업이 보다 복잡한 글로벌 IP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 체계와의 통합이 오래 걸리기 때문
- 또한 2024년 단일특허 신청 상위 기업 중 Siemens, Johnson & Johnsons, Qualcomm, 삼성 등 글로벌 대기업도 포함되는 등 이미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 반면 제약 산업에서 단일특허 채택이 더딘 편인데, 이는 특허 수가 적은 제품이 단일특허 무효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모든 관할국에서 동시에 보호를 잃게 되는 리스크 때문. 그럼에도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점차 이 분야에서도 채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2024년 특허 출원 통계에 따르면 개인 및 중소기업 발명자 비중은 전체의 22%,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은 7%를 차지해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함. 또한 올해 처음으로 컴퓨터 기술 및 인공지능 분야가 가장 많은 특허 출원을 기록

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news/smes/universities-and-smes-embrace-europes-unitary-patent>

2. EU 공모 현황 및 보고서 등

① 집행위, 과학 자문 메커니즘(SAM) 활동 보고서 발표(4.2)

- EU 집행위원회는 과학 자문 메커니즘(SAM)의 최근 5년간(2020~2024년) 주요 활동과 정책 영향력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
 - SAM은 집행위의 요청에 따라 유럽 기관에 독립적인 과학적 증거와 정책 권고안을 제공
 - SAM은 정책 권고안을 작성하는 최고 과학 고문 그룹, 유럽 아카데미 네트워크를 모아 증거를 종합·검토하는 SAPEA, 그리고 집행위 연구혁신 총국 내 조정 부서로 구성된 3부 체계
 - 이번 보고서는 1기 폰테어라이엔 집행위원단 기간 동안 SAM이 수행한 11개의 주요 과학 자문(암 검진 개선, 태양 복사선 조절 등)에 초점을 맞춤
 - 또한 이러한 자문의 영향을 분석하여 EU와 회원국 내에서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
 - 예를 들어 2020년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한 자문은 EU 집행위가 발표한 생분해성·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정책 프레임워크의 기초가 되었으며, 2022년 암 검진 개선 자문은 EU의 '암 극복 계획'하에 EU 암 검진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으로 채택됨. 또한 2024년 태양복사 조절 관련 자문은 프랑스 유력지 Le Monde 1면 보도로 이어지는 등 언론의 주목도 받음

출처

http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news/all-research-and-innovation-news/scientific-advice-mechanism-outputs-and-impacts-2025-04-02_en

② 유럽인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4.8)

- 지난 2월 유럽인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가 발표됨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연구혁신총국이 의뢰하여 올해 2월 발표한 과학기술에 대한 유럽인의 태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로, 2024년 9월과 10월에 EU 회원국과 영국, 터키 등 주변국의 34,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눈에 띄는 결과 중 하나는 과학·기술 규제에 대한 인식이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인 것임
 - 과학과 기술이 정부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자유롭게 운영되도록 허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국가별로 큰 차이가 나타남
 - EU 전역에서 시장의 자유(44%)보다 정부의 규제(54%)를 선호하는 의견이 약간 더 많았음
 - 포르투갈에서는 응답자의 약 80%가 정부의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핀란드에서는 단 25%만이 정부 규제에 동의
- 연구 보안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음에도 EU 시민들은 여전히 정부가 개입하기보다는 연구기관이 맡는 것을 다소 선호함
 - 국제 공동연구에서 보안 책임 주체에 대해 EU 시민의 43%는 대학과 연구소가 주요 책임자라고 보고 있음
 - 응답자의 30%는 정부, 27%는 자금 지원 기관이 국제 연구 보안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답함
- 대부분의 응답자(83%)가 과학과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고 답함
 - 그러나 61%는 과학과 기술이 모두의 삶을 개선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기득권층만 혜택을 본다는 의견에 동의함

- 이와 같이 과학 기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지만, 일부는 과학에 대한 음모론적 신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35%의 사람들이 '바이러스는 정부 실험실에서 만들어져 자유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진술을 믿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2021년 대비 7%p 증가한 수치
- 또한 30% 이상이 '암 치료법은 존재하지만 기업 이익 때문에 대중에게 숨겨져 있다'고 믿거나, '기후 변화는 주로 인간이 아닌 자연주기의 결과'라고 믿음.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나타난 사회적 불신과 정보 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news/r-d-funding/data-corner-europeans-views-science-and-technology>

③ 호라이즌 유럽 성평등 기준 적용의 실제 영향 및 과제(4.1)

- 호라이즌 유럽은 모든 지원 기관에 성평등 행동계획을 요구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평가 시 성별 균형이 동점 여부를 가르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함
 - 2021~2023년 동안 제안서 평가 동점 상황에서 3%의 제안서에서 성별 균형이 최종 결정 요소로 작용했으며, 비율은 작지만 여성 연구자의 참여 방식에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것으로 보임
 - 유럽연구대학연맹(LERU)의 정책담당관 Bucci는 이 기준 덕분에 연구팀이 프로젝트 리더를 선정할 때 성별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되었다고 말함
 - 집행위 통계에 따르면 연구자들이 이전보다 성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성평등 기준이 도입된 이후 여성 리더의 참여 비율이 호라이즌 2020에 비해 23%에서 31%로 증가함
 - 호라이즌 유럽에서는 한정된 지원금을 두고 많은 우수 제안서가 경쟁하기 때문에 평가 동점이 흔하게 발행하며, 이때 사용되는 5가지 'ex-aequo' 기준*이 있음(성별 균형은 세 번째로 고려되는 기준)
- * ①독창성 ②우수성 ③성별 균형 ④지리적 다양성 ⑤전략적 기여도 순서로 평가
- 보조금 자문위원들은 성평등 기준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존재했음을 인정함
 - 독일 EU 연락사무소 KoWi의 Claus는 처음 자문위원들이 평가 시 성별 기준에 대해 지원자들에게 어떻게 안내해야 할지 잘 몰랐다고 말함
 - 도입 초기 집행위가 해당 정보를 통계 목적으로만 활용한다고 공지해 혼란을 초래함
 - 일부 지원 컨소시엄은 평가용으로 형식적 균형을 맞춘 뒤 실제 실행 단계에서 이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계약 체결까지 최대 8개월이 소요되므로 그동안 팀원 변경 가능성이 존재
 - Bucci는 엄격한 50:50 비율은 전문성보다 성별을 우선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40:60 범위 기준 혹은 팀 구성 이유 설명 등 유연한 접근이 더 바람직하다고 제안함

④ 호라이즌 유럽 2025 공모 개시 일정(3.25)

○ 호라이즌 유럽 워크 프로그램 초안에 따르면 2025년 첫 번째 공모는 5월 6일에 개시될 것으로 예상됨

- 원래 4월에 올해 첫 번째 호라이즌 유럽 공모를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지연되어 시작 날짜가 연기됨

- 클러스터별 주요 일정과 예정된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음

클러스터	주요 일정	예정된 주요 과제
CL1 보건	공모: 5월 22일 파트너십 공모: 5월 13일 개시, 6월 3일 마감 정보 세션: 5월 22일	- 감염병 예방 및 치료용 항체·단백질 개발 (총 5,000만 유로, 과제당 1,000만 유로) - 유전자 기술을 활용한 세포 치료 강화 (총 5,000만 유로, 과제당 800~1000만 유로) - 바이오테크 연구의 치료 전환 촉진 (총 8,000만 유로, 과제당 400~800만 유로) - 지적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 (총 4,000만 유로, 2단계 공모) 파트너십 과제 - 유럽 뇌 건강 파트너십 - 보건 연구를 위한 유럽단일연구공간(ERA) 조성
CL2 문화, 창의성, 포용 사회	공모: 5월 15일 개시, 9월 16일 마감 정보 세션: 5월 15일	- 극단주의, 혐오 표현, 사회적 분열 대응 (총 700만 유로, 과제당 300~350만 유로) - 권위주의의 매력과 동인 분석 (총 1,050만 유로) - 창의 중심 혁신을 위한 AI 활용 (총 1,500만 유로) 파트너십 프로그램: 총 예산 6,000만 유로 규모 협력 공모 예정
CL3 시민 안전	공모: 6월 12일 개시	- 사이버 보안용 생성형 AI 개발 (총 4,400만 유로, 과제당 1,400~1,600만 유로) - 조직범죄 탐지·예방 역량 강화 (총 800만 유로)

CL4 디지털, 산업, 우주	산업 분야 공모: 5월 22일 우주 분야 공모: 6월 3일 디지털 분야 공모: 6월 10일 정보 세션: 5월 13~14일	예산: 약 16.17억 유로 • 위성 및 지구 관측 기술 기반 솔루션 시연 • 해양 오염 탐지 지원을 위한 Earth observation 서비스 • 산업용 생성형 AI 및 로봇틱스 개발 (8,500만 유로, 과제당 4,000~4,500만 유로) • 데이터 생태계 혁신 • 몰입형 가상 세계를 위한 생성형 AI 기술
CL5 기후, 에너지, 모빌 리티	(구체 일정 미공개, 4월 말 기준 미확정) (정보 세션 미공지)	-
CL6 식량, 바이오 경제, 자원, 농업, 환경	공모: 5월 6일 개시 정보 세션: 5월 20~21일	• 생물다양성 실측 및 정책 영향 분석 (2,200만 유로) • 대안 경제모델 및 순환경제 전환 • 오염 생태계 복원을 위한 환경 바이오기술 • 식물 건강을 위한 검역조치 개발 • 가정 내 식품 낭비 감소 기술 및 정책 연구

- 이외 MSCA Staff Exchange 2025는 3월 27 ~ 10월 8일 공모 진행

- MSCA 포닥 펠로우십은 4월 9일 ~ 9월 10일 공모 진행

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news/r-d-funding/eu-budget/funding-radar-eus-forthcoming-calls-proposals-2025>

5 [SB펀딩레이더] 수소 관련 주요 공고(4.7)

- EU는 호라이즌 유럽, 혁신기금, 유럽연결프로젝트, REPowerEU, 공정전환메커니즘 등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수소 혁신에 막대한 투자를 해옴
 - 유럽은 주요 미래 에너지원으로서 수소 생산을 지원하고 있음
 - 지난 3월 28일 EU는 칠레의 재생 수소 부문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럽 투자은행과 KfW 개발은행으로부터 최대 2억 유로의 자금과 친환경 수소 개발 지원을 위한 1,650만 유로의 보조금 협정을 체결
 - EU 이니셔티브 중 하나인 청정수소 파트너십과 관련하여 5월 8일 지속 가능한 순환 수소의 대규모 배치에 대한 [웨비나](#)가 진행될 예정

호라이즌 유럽 청정수소 파트너십

- 공모: 4월 23일 마감
- 주관: 유럽 집행위원회 + 청정수소 파트너십(공공-민간 파트너십)
- 주요 공모 과제: [고용량·고효율 수소 압축 기술 개발](#), [재생가스 및 바이오 폐기물로부터 수소·고체 탄소 생산 기술](#), [소규모 수소밸리 구축](#), [대규모 수소밸리 구축](#), [암반 지하공간\(Rock Cavern\)을 활용한 수소 저장 기술 개발](#)

유럽연결프로젝트(CEF)

- 공모 : 9월 16일 마감
- 주요 공모 과제: 전기, 가스, 스마트그리드, 수소, CO2 네트워크 관련 [연구](#) 및 [작업](#)

EU 혁신기금

- 공모: 4월 24일 마감
- 주요 공모 과제: [소규모/중규모/대규모](#) 일반 탈탄소화 프로젝트, [청정 기술 제조](#)

유럽우주국(ESA)

- 공모: 4월 11일 개시, 5월 23일 마감
- 주요 공모 과제: 우주 기술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및 활용 가능성
- 지원 금액: 과제당 최대 20만 유로

프랑스 국립연구재단(ANR)

- 공모: 5월 6일 마감
- 주관: 유럽 집행위원회 + 인도 과학기술부(DST)
- 주요 공모 과제: 전기화학 수소 생산 및 연료전지 기술 혁신, 수소 운반 및 저장 기술 개발

3. EU 연구성과

① [성공사례] 회복탄력적인 가족을 위한 정책 설계

- rEUsilience 프로젝트는 가족들이 유럽 경제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
 - 유럽은 인구 고령화, 재정적 불안정 심화, 불평등 심화, 그리고 변화하는 근로 관행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 정책 입안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회복탄력적인 유럽 경제의 핵심임을 알고 있으나, 이는 대개 개인과 관련된 부분에서만 논의됨
 - 스톡홀름 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인 렌세 니우벤하위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자원과 역량은 근본적으로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형성되는 긴밀한 관계에 의해 형성된다”라고 말하며 가족의 중요성을 언급
- rEUsilience는 가족을 더욱 회복탄력적인 유럽 건설의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
 - 옥스퍼드 대학교 사회학 및 사회 정책 교수 메리 데일리는 “우리의 목표는 모든 유럽 가족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번영하는 데 필요한 자원, 기술, 그리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라고 말함
- 동 프로젝트는 가족생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로 시작되어, 가족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뿐만 아니라, 가족이 직면하는 여러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연구
 -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대규모 데이터 세트 분석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연구진은 가족의 회복탄력성 역량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한계점을 발견
 - 가장 큰 제약은 자원 접근성 부족으로, 이는 가족의 위험 감수 또는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을 제한할 수 있음

- “실업, 건강 악화, 돌봄의 필요성과 같은 여러 위험이 겹치면 많은 가족이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경향이 있다” (데일리 교수)
- “유럽의 많은 가정은 새로운 직업 세계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동시에 그러한 위험을 극복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중적인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니우웬하우스 교수)

○ **본 프로젝트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행 가능한 권고를 만드는 데 주력**

- 니우벤하우스 교수는 “유럽의 복지 국가는 모든 가정에 동일하게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며, 그 격차는 포용성, 유연성, 그리고 다양한 가정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정책으로부터 기인된다”라고 지적
- 이러한 격차를 메우기 위해 본 프로젝트는 혁신적인 정책 연구소를 설립, 정책연구소는 가정, 가정 단체, 정책 입안자들을 하나로 모아 정책입안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와 솔루션,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공하여 어떤 가정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예를 들어, 본 프로젝트는 가정생활의 전환을 원활하게 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있으며, 포괄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음
- “정책연구소는 영향력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으며, EU 및 회원국 차원에서 가족 지원 및 가족 돌봄과 관련된 증거 기반 의사 결정을 촉진하기 위해 본 연구를 활용할 것이다” (데일리 교수)

○ **동 프로젝트는 유럽의 주요 인구 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족에 대한 이해를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

- 여기에는 가족 관계를 기반으로 가구를 분류하는 것이 포함되며, 이는 일반적으로 ‘다세대 가구’로 묶여 있는 가구를 더 잘 식별하는 접근법임
- 또한, 연구자들은 현재 EU 조사 포트폴리오에 추가할 수 있는 맞춤형 설문 조사를 개발하여 자원 추적, 공유, 그리고 회복탄력성 측면에서 가족의 실제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있음

○ **rEUsilience 프로젝트는 사회 정책과 공공 및 비영리 단체의 활동을**

통합함으로써 정책 결정을 통해 가족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데 큰 진전을 이룸

- “우리의 권고안이 반영된다면, 우리의 활동은 더 많은 가족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가족 구성원들이 회복탄력적인 유럽 경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니우벤하우스 교수)

rEUsilience 프로젝트

- 기간 : 2022.09.01. ~ 2025.08.31.
- 예산 : 약 2,317,925.50 유로 (EU 100% 지원)
- 주관 : STOCKHOLMS UNIVERSITET (Sweden)

출처

<https://project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en/projects/success-stories/all/stronger-europe-starts-more-resilient-families>

② [성공사례] 유럽의 근로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솔루션 개발

- WorkYP 프로젝트는 각기 다른 지역과 사회 모델을 대표하는 7개 유럽 국가를 조사, 연구 결과로 취업 중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정책 권고를 제시
 - 수백만 명의 유럽인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등 고용 상태에도 불구하고 빈곤에 처해 있거나 빈곤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비율이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옴
 - 이러한 증가는 경제적 안정, 사회적 결속력, 그리고 EU 시민권의 개념 자체에 영향을 미침
 - WorkYP는 3년 간의 활동 기간 동안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조사
 - 룩셈부르크 대학교 유럽 및 비교 노동법 부교수이자 프로젝트 코디네이터인 루카 라티는 “취업 중 빈곤이 우리 노동 시장에 뿌리내린 이유를 이해하고 정책적 접근법을 검토하고자 했다. 근로자 10명 중 1명이 ‘근로 빈곤층’이라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라고 말함
- 모든 근로자가 공정하고 적절한 임금과 모든 유형의 고용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유럽사회권기둥(European Pillar of Social Rights)’은 ‘근로빈곤문제해결’을 명시
 - WorkYP 프로젝트는 아직 제대로 인식이 되지 않고 있으며, 연구가 부족한 이러한 현상을 조명하기 위해 11개의 파트너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
 - “2020년 이전에는 근로 빈곤에 대한 논의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사회적 목표는 근로 빈곤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었고, 과학적 목표는 근로 빈곤 퇴치를 위한 비교 법적 분석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라티 교수)
- 3년에 걸쳐 프로젝트 팀은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스웨덴을 살펴봄
 - 각 국가는 고유한 지리적 위치, 사회 제도, 그리고 법 체계를 가지고 있음

- 이번 연구는 이전 연구에서 조사되었던 일반적인 노동 시장 동향에서 벗어나 특정 취약 계층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우려스러운 현실을 드러냄
- “취약 계층과 소외 계층은 현행 노동법과 보호 체계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근로 빈곤의 영향을 불균형적으로 많이 받고 있다. 우리는 법이 이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고자 했다. 시스템이 대상의 100%를 보호할 수 없다면, 이는 모든 EU 시민에게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 이 연구는 관광 및 건설업과 같은 분야의 저임금 근로자와 사회 안전망이 부족한 자영업자의 노동 보호에 심각한 격차가 있음을 드러냄
 - 이는 법률이 특정 노동력 계층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
 - WorkYP는 또한 인접 국가들 간의 취업 빈곤율에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보여줌. 룩셈부르크는 근로 인구의 약 14%가 빈곤 상태에 있는 반면, 벨기에는 5%에 불과
 - 또한, 이 프로젝트는 여성들이 가계 소득 평가에서는 빈곤선 이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음에도 실제로는 여전히 빈곤 상태에 있는 젠더 패러독스를 강조
 - 7개국에서 진행된 워크숍은 취업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실제 경험을 조명하여 질적 데이터를 통해 연구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
 - 이러한 행사는 프로젝트 연구에 도움이 되는 귀중한 현장 통찰력을 수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 이러한 결과는 정책 입안자와 대중의 상당한 관심과 근로 빈곤에 대한 논의를 촉발, 또한, 이 프로젝트의 권고는 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총체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
 - WorkYP 최종 회의에서 이러한 제안들은 EU 일자리 및 사회권 집행위원 니콜라스 슈미트와 UN 극빈곤 및 인권 보고관 올리비에 드 슈터에게 제시됨

- 권고에는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보장 시스템 강화, 강력한 최저임금법 시행,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대한 맞춤형 재정 지원 제공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EU 시민들이 공공 거버넌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도록 돕기 위함
- WorkYP 프로젝트는 2023년 1월에 종료되었으나, 그 파급효과는 지속되고 있음
 - WorkYP의 연구는 전례 없는 방식으로 과학적 논의에 침투하여 유럽 및 국제 연구원과 정책입안자들 사이에서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근로 빈곤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킴
 - 동 프로젝트를 통해 3,000 페이지가 넘는 문서 자료, 두 권의 책, 그리고 유럽 및 국가 차원에서 저명한 학술지에 40편 이상의 학술 논문이 게재됨
 - 유럽 전역에서 근로 빈곤의 급격한 증가와 지속성에 맞서는 것은 길고 어려울 수 있으나, WorkYP는 대중 및 정책 차원에서의 인식을 성공적으로 제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를 제공

[WorkYP 프로젝트](#)

- 기간 : 2020.02.01. ~ 2023.01.31.
- 예산 : 약 3,244,294.00 유로 (EU 지원 100%)
- 주관 : UNIVERSITE DU LUXEMBOURG (룩셈부르크)

출처

<https://project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en/projects/success-stories/all/uncovering-europes-hidden-poverty>